

세계체계의 변화와 한국의 농식품체계: 식량체제론을 중심으로*

김철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세계체제론은 사회학 연구의 여러 분야에 큰 이론적·경험적 영향을 끼쳤다. 농업과 먹거리 관련해서는 식량체제론이 대표적이다. 식량체제론은 세계체제론, 특히 헤게모니 체계와 관련된 논의를 식량 공급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중범위적 역사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 글은 맥마이클과 프리드먼에 의해 만들어진 식량체제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이론적·방법론적 함의를 기반으로 한국의 농식품체계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식량체제의 개념화가 어떤 방법론적 기반을 갖는지를 소개하고, 영국 헤게모니를 기반으로 했던 '1차식량체제'와 미국 헤게모니를 기반으로 하는 '2차식량체제'의 특징을 비교한 뒤, 새로운 조절양식을 기반으로 하는 '3차식량체제'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거대구조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식량 공급기제, 즉 농식품체계를 통합적 비교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식량체제, 즉 신자유주의적 기업식량체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식량주권 및 대안 모색의 노력들을 소개하였다.

주제어 세계체제론, 식량체제론, 농식품체계, 식량주권, 대안먹거리 운동

I. 서론

거대한 사회변동에 관한 고전으로 자리잡은 월러스틴의 저작 『근대세계체제 I』의 부제는 “자본주의 농업과 16세기 유럽 세계-경제의 기원”이다. 이 부제에 주목하면서 프리드먼은 근대 세계체제의 농업적 기원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Friedmann, 2000). 또한 자본주의 발전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본원적 축적의 사회경제적 과정은 농민이 토지로부터 쫓겨나서 가지게 되는 이중적 자유와 깊이 관련된다(Marx, 1967). 농업과 농민의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발전의 동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대체로 공업, 노동계급,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해 왔다.

* 이 연구는 2019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K1908171)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자본주의 발전의 동학은, 세계적 분업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지리적으로 비산업부문, 특히 농업과 농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져 왔다. 또한 농업의 산물인 식량은 자본주의 발생 초기부터 전 지구적인 교역상품으로 노동계급의 재생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으로서의 먹거리(food)는 역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해 온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다. 자본주의 발전의 궤적을 이해하고, 그 내부 동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량이 어떻게 생산되며, 어떤 과정을 거쳐 교역이 이뤄지며, 노동자들은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누가 관리하고 통제하는지와 같은 질문은 매우 기본적이며 중요하다.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먹거리는 경제·사회적으로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재구성되어 왔다.

식량체제론(Food Regime Perspective)은 이러한 분석적 공백을 메우고, 자본주의 세계모니 사이클 속에서 먹거리 공급의 사회적·지리적 구성을 분석의 중심에 둔다(Friedmann, 2000). 식량 생산, 교역, 소비습관, 농지, 농민, 탈농과 같은 소재들에 관심을 갖고, 역사적 분석을 시도한다. 역사적 분석은 공시적인 비교와 통시적 비교를 통해 이론적 개념인 식량체제로 모아지고, 식량체제라는 렌즈는 다시 경험적·역사적 분석을 위해 도구로 활용된다. 소위 통합적 비교(incorporated comparison)를 통해 이론의 역사화와 역사의 이론화를 유연하게 진행하는 것이다(McMichael, 1990)

이 글은 세계체제론의 영향하에서 먹거리 생산·유통·소비와 자본축적의 관계를 분석해 온 식량체제론을 소개하고, 그 틀에서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 농식품체계의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식량체제론의 시각을 바탕으로, 한국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농업, 농민, 식량 무역, 식품 유통 및 소비 등이 어떻게 구조화되었고, 재편되고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식량체제를 자본주의의 특정한 국면에서의 먹거리의 지구적 공급구조라고 할 때, 그 틀에서 조망하며 변화하는 개별 국가의 먹거리 공급구조를 농식품체계(agri-food system)로 개념화했다. 이러한 개념적 도구를 활용하여, 한국에서의 농식품체계의 변화 궤적을 추적하고 그 특징을 밝힐 것이다.

II. 식량체제론의 지식사회학적 배경

식량체제론(Food Regime Perspective)은 발전사회학과 농업사회학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발전한 사회변동의 설명틀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발전, 특히 영국과 미국의 해계모니 체계의 특징을 식량 공급의 측면과 관련된 국가, 무역, 국제분업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식량체제론은 세계사적 시각(world-historical perspective)에서 “자본주의 세계경제 발전과 국가 간 체계의 궤적에 있어서 농업의 역할”을 탐구하는 데 있다(Friedman and McMichael 1989: 93).¹ 1980년대 이후 토론토대학의 프리드먼(Harriet Friedmann)과 코넬대학의 맥마이클(Philip McMichael)의 작업을 통해 발전되어 온 식량체제론은 이론적으로 세계체계론, 조절이론, 그리고 상품사슬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² 식량체제론의 기원은 1982년 『미국사회학회지(American Journal of Sociology)』에 게재되었던 프리드먼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량질서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Friedmann, 1982). 1989년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한 이후 프리드먼과 맥마이클은 다양한 협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식량체제론을 발전시켰다(Friedmann and McMichael, 1989).

식량체제론은 자본주의의 긴 역사를 먹거리의 공급, 국제분업, 그리고 소비구조의 측면에서 시기화한 것이다(McMichael, 2009). 방법론적으로는 통합적 비교를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McMichael, 1990; 2000b; Araghi, 2003) 이는 과정으로서의 전체와 부분의 상호 구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세계체계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구성단위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시 하위 구성단위의 맥락으로 작동한다. 아리기 식으로 표현하면, “순환들”은 자본주의라는 역사과정의 서로 연결된 사례들로, 순환들은 역사과정을 구성하고 수정하는 것이다(Arrighi, 1994: 66). 식량체제의 동학과 전환은 구성적이며 과정이 중요하다. 이는 맥마이클의 사회변동 혹은 발전을 바라보는 독특한 입장의 기반이 되는데, 역사

¹ 이하에서 영어 글의 인용문은 필자의 번역이며, 인용 쪽은 영어 원문의 것이다.

² 한 인터뷰에 따르면, 프리드먼과 맥마이클은 『장기 20세기』가 출간되기 훨씬 전부터 아리기의 축적의 체계적 순환 개념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다. 더불어 같은 인터뷰에서 아글리에타의 조절이론의 영향을 언급하며, 특히 영국과 미국의 자본주의 발전 방식의 차이와 관련된 “외연적(extensive)” 축적과 “내포적(intensive)” 축적 개념의 유용성에 대해 지적한다(Friedmann et al., 2016: 3).

를 이론화(theorizing history)하고 이론을 역사화(historicizing theory)한다는 것이다.

프리드먼과 맥마이클 두 학자는 영국 자본주의 발전과 관련된 ‘1차식량체제(First Food Regime)’와 20세기 미국 자본주의 발전의 틀에서 형성된 ‘2차식량체제(Second Food Regime)’에 관한 작업을 함께 진행해 왔다. 최근 2차식량체제 이후의 체제 변화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맥마이클은 신자유주의적 변화 속에서 형성된 식량체제를 ‘기업식량체제(corporate food regime)’로 표현한 데 반해 프리드먼은 자본-생태에 주목하며 녹색자본주의(green capitalism) 개념을 통해 ‘3차 식량체제(Third Food Regime)’의 특징을 밝히려 하고 있다. 두 학자는 식량체제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대안에 대한 고민과 현실참여를 해 왔다. 프리드먼은 토론토의 지역먹거리 체계의 제도화와 그 성과로서의 먹거리정책위원회(Food Policy Council)의 형성과 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맥마이클은 식량주권(food sovereignty)을 중심으로 농민운동단체를 지원하고, UN의 식량보장위원회(UN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식량체제론은 농업과 사회변동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적 시각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사회학회 RC40,³ 유럽농촌사회학회(European Society for Rural Sociology), 농업·먹거리·인간가치학회(Agriculture, Food, and Human Value Society),⁴ Australasian Agri-food Research Network 등 관련 전문학회에서 식량체제론 특별 세션이 열리거나 맥마이클과 프리드먼을 기조강연자로 초청하는 학회를 열기도 했다.

식량체제론은 자본주의의 역사, 특히 영국 헤게모니와 미국 헤게모니 시기를 구분하고, 그 특징을 먹거리의 공급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역동적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식량체제의 시기화는 헤게모니 국가의 규범 형성과 관련되며 이러한 규범이 국가 간 체계에 위치한 개별

³ 예컨대 2018년 7월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19회 세계사회학대회(ISA World Congress of Rural Sociology) RC40에서는 Food Regime Analysis in an Asian Context라는 주제의 세션에서 아시아 발전과 농업에 관한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맥마이클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https://isaconf.confex.com/isaconf/wc2018/webprogram/Session10326.html>

⁴ 이 학회에서는 2009년 식량체제론에 관한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같은 해 학술지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24집 4호를 통해 식량체제론 특집을 출간했다.

국가 내에 제도화된다. 물론 특정 국가가 이전 체제에서 물려받은 제도적 유산 속에서 이런 과정이 진행된다. 프리드먼은 이러한 개념화가 아리기의 작업과 깊이 관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식량체제론은 아리기로부터 헤게모니 체제를 구성하는 화폐 규범의 특정한 형태를 빌려 와서, 경쟁적 제국주의 블록들의 세트라는 특정한 형태 국가체계의 조절에 있어 중심이었던 영국에 초점을 맞춘다. 19세기 후반부에 제국주의적으로 조직화된 밀 복합체의 형성을 통해 소비의 양식이 어떻게 영국에서 조직되었는가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어서 식량체제는 제국주의적 블록의 해체와 더불어 등장했던 내셔널한(national) 것으로 보이는 다른 유형의 국가체계의 조절에 중심인 미국에 초점을 맞춘다(Friedmann et al., 2016).

식량체제론은 이론이라기보다는 방법론을 통한 역사 이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맥마이클에 따르면 식량체제는,

이론적 구성이 아니라 분석의 한 형태다. 그것은 방법, 즉 세계사적 방법(a world-historical method)이다. 식량체제는 농식품의 렌즈를 통해 지구적 권력관계의 중요한 전환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는 국제관계이론과 세계체제론에 대한 도전이며, 자유주의 및 마르크스주의 발전이론을 재구성한다. ... 이런 의미에서 식량체제 개념은 자본주의 식량관계의 역사에 있어서의 전환과 구조적인 모멘트뿐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역사를 여는 열쇠다. 그것은 먹거리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먹거리가 생산되고 자본주의가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관계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식량체제는 먹거리 상품에 체현된 다중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렌즈다(McMichael, 2009: 281).

즉 식량체제 분석은 역사적 부분들이 비교의 기반이 되며 동시에 그 부분들은 전체(식량체제)를 역사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식량체제분석은 또한 안정성과 변화의 연속적 시기들을 전체의 역사적 진화를 바라보는 렌즈로 활용하며, 이질성과 우연성을 강조한다(Magnan, 2012: 375). 맥마이클은 직접적으로 식량체제론이 통합적 비교방법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히며, 세계질서의 통시적 분석과 공시적 분석을 함께 활용하여, 순환적 동학(cyclical dynamics)과 장기추세(secular trends)를 종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McMichael, 2016).

III. 먹거리 동학의 역사: 식량체제들

사회변동의 분석에 있어 시기화(periodization)는 중요한 작업이다. 마르크스나 베버 같은 사회학의 거장들은 경험적 역사의 거의 무한한 복잡성 속에서 시간적 역동성(temporal dynamics)을 분별하고 명료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시기화를 했다고 할 수 있다(Katznelson, 2003: 271). 식량체제론은 19세기 후반기 안정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며 특정한 방식으로 자본축적과 먹거리 공급의 규칙을 만들고 확산시켰던 영국 헤게모니 시기를 1차식량체제로 명명한다.

1차식량체제는 1870년경부터 1914년까지 제국주의적 자유주의 시기의 자본축적 과정의 몇 가지 특징들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노동강도를 높이고, 비임금 노동을 적극 활용하는 형태의 외연적 축적 시기였다. 영국을 비롯한 중심부 국가들은 제국주의 교역망을 바탕으로 식민지역으로부터 저렴한 곡물을 수입하였다. 특히 밀은 급격하게 증가하던 유럽 노동자들에게 필수적인 식량으로 임금식품(wage food)으로 자본주의 발전과 노동계급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주식으로서의 밀은 대부분 온대 정착자 식민지(settler colony)에서 수입되어 노동계급의 생존을 뒷받침했다. 정착자 식민지 지역은 목축을 통한 육류 공급지로서의 역할 역시 수행하였다. 대표적인 정착자 식민지는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었다. 한편 유럽 노동자들은 그 외에도 카리브 지역에서 수입한 높은 열량을 지닌 설탕(Mintz, 1986)을 대량으로 섭취하며 강한 노동강도를 견뎠다. 제국주의적 분업과 교역을 통해 임노동 관계가 확산·안정화되었으며 영국은 ‘세계의 작업장(workshop)’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다.

중심부 유럽 자본주의의 발달은 물론 비서구 식민지역의 사회구조 변동과 노동과정 변화를 가져왔다. 다양한 사회조직과 생산방식을 유지해 왔던 비서구 지역은 식민화에 따라 중심부의 경제적 요구에 의해 강제된 형태의 생산조직으로 전환되었다. 생산방식이나 작물은 지역에 따라 달랐지만 식민지역의 농업생산은 대부분 식민지 주민들의 먹거리와는 상관없는 집약적 단작농업이었다. 인도의 차, 카리브 지역의 설탕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식민지 지역 주민들의 식량체계를 위협하였고, 생태적 자원의 착취와 환경의 재구조화를 의미하는 것

이었다.

영국 헤게모니하에서의 제1차식량체제는 역설적이게도 일부 식민지, 특히 정착지 지역의 정치경제적 발전을 추동하였다. 이에 따라 민족적 농업이 성장하고, 독립된 국민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그 예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국가들이었다. 이는 전혀 새로운 국가간체계의 동학을 낳게 된다.

영국 헤게모니의 쇠퇴로 상징되는 제국적 자유주의 질서의 와해와 자기조정적 시장의 헛된 기획은 세계대전과 국제질서의 급격한 재편을 낳았다(Polanyi, 1944/2001). 영국의 그것과는 다른 배태된 자유주의와 영토주의에 기반을 둔 미국의 헤게모니 체계가 2차세계대전을 계기로 안정화되었다(Ruggie, 1982; Arrighi, 1994). 미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 마샬플랜과 식량원조를 기반으로 세계자본주의 질서의 안정적 재편을 추진한다. 이는 물론 냉전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구도 속에서 이뤄졌다. 영국 헤게모니하에서 부분적으로 확산되었던 정착자 식민지 지역들의 국가간체계 역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탈식민화의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체계가 확장되고, 동형적인 국민국가들이 제도화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국간 체계의 관리틀이 미국에 의해 주도된 국제연합과 브레튼우즈 체제였다(Arrighi, 1994; McMichael, 2004). 이러한 국제 관계의 제도적 틀 속에서 미국 헤게모니가 안정화되었다.

미국 헤게모니하에서 식량의 공급과 산업적 국제분업 구조는 예전의 그것과는 사뭇 달라졌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중심부/미국의 석유농업에 의해 생산된 값싼 식량이 일부 비서구 국가들의 산업 노동자들의 임금식량이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냉전의 전략적 방어선에 위치한 일부 신생독립국가들이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는 미국의 직간접적인 식량지원을 기반으로 했다. 미국의 잉여식량의 이동은 초기에는 식량원조를 통해, 그리고 경제발전이 일정 단계에 이른 후에는 무역을 통해 이뤄졌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식량 및 국제분업 조절을 특징으로 하는 구조가 2차식량체제다.

2차식량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대개 1970년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안정적 헤게모니에 균열이 생기고, 전 세계적 개발주의가 쇠락하고, 세계화 프로젝트가 등장하는 1980년대 이후에는 식량체제 역시 또 다른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본다. 2차식량체제는 중심부 식량생산의 산

업화, 노동과정의 합리화, 그리고 반주변부의 임노동 관계의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내포적 축적을 특징으로 하였다. 중심부, 특히 미국의 식량 과잉생산은 1930~1940년대 발달한 산업형 농업 혹은 석유농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Pfeiffer, 2006). 육종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종자 개발, 농화학에 기반을 둔 화학비료 및 농약의 사용,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대형 농기계의 상용화 등은 미국의 곡물 생산량이 급증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는 곡물의 과잉생산 문제를 낳았으며, 만성적인 잉여농산물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정치적 문제였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잉여 식량문제는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국제질서 관리의 유용한 자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행정책이 식량원조 프로그램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비서구 국가들은 국가간체제 안에 포섭되었으며, 냉전 체제 속에서 생산주의를 내재화하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McMichael, 2004). 미국은 전후 질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원조를 탈식민 지역에 제공했다(김종덕, 1997). 대표적인 원조품은 밀, 설탕, 원면 등이었고, 이는 이후 수원국의 초기 산업발전의 중요한 자원이 되기도 했다. 식량체제론자들은 밀의 역할에 특히 주목한다. 미국에서 산업형 농업을 통해 생산된 밀은 미국 정부의 지정학적 고려 속에 냉전의 전선에 위치한 다수의 비서구 국가들에 원조를 통해 공급되었다. 식량부족 문제에 시달리던 비서구 국가들은 자신의 전통적인 주곡 대신 미국으로부터 유입된 값싼 밀을 소비하게 되었다. 값싼 수입산 식량은 비서구 국가들의 전통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위협했고, 이는 전 지구적인 탈농(depeasantization)을 초래했다(Araghi, 1995). 농촌에서 이동한 사람들은 도시에 모여들었고, 잠재적인 노동자로서 도시 빈민층을 형성했다. 산업예비군 형성의 중요한 원인이 식량원조였던 것이다. 일부 주변부 국가들의 산업화는 이러한 산업예비군을 활용한 것으로, 밀은 주변부 노동계급 형성의 중요한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식량체제론자들은 식량원조는 냉전의 전략적 선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비공식 제국(informal empire)으로서 제3세계의 산업화를 선택적으로 독려했다고 주장한다(McMichael, 2009). 식량원조는 개발의 열차에 오른 일부 주변부 국가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조하였고, 더불어 공산주의와 대항하는 국가를 만들어 냈다.

2차식량체제는 발전 프로젝트와 깊은 친화성을 지녔는데, 산업 부문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팽창과 농업 부문에서는 녹색혁명을 통한 산업적 농업의 제도화로 이어졌다. 녹색혁명은 미국의 산업형 농업을 제3세계 지역에 확산시킴으로써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었다. 미국의 포드재단, 록펠러재단 등의 후원을 받아 세계 여러 곳에 농업 관련 연구소가 만들어졌으며, 이들은 다수확 품종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로스바노스에 만들어진 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가 대표적이다. 쌀 다수확 품종을 개발하고 아시아 국가의 관련 연구소들에 기술적 지원을 했다.

결과적으로 2차식량체제는 일부 주변부 국가들을 발전의 사다리에 오르게 했으며, 미국으로부터 식량 공급은 주변부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로 이어졌다. 소위 신흥공업국가들(NICs)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산업화와 노동계급의 성장 속에서 몇 가지 대가를 치르게 된다. 첫째,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고, 식량의 해외의존성이 높아졌다.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녹색혁명의 결과 농업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이는 관련 농화학 산업자본의 농업침투 혹은 전유주의로 개념화될 수 있다 (Goodman et al., 1987). 셋째, 발전의 사다리를 오르게 된 신흥공업국가들은 음식 전환을 이루게 된다. 음식전환은 두 가지를 내용으로 했다. 하나는 전통적인 주곡이 아니라 밀을 재료로 하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며, 다른 하나는 육류 소비의 증가다. 식량체제론자들은 전자를 밀 복합체(wheat complex)로 후자를 육류복합체(meat complex)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양자 모두 비서구 국가의 지역농업, 농민, 생태 등을 배제하고, 시장 관계를 심화시킨다.

2차식량체제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퇴하면서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된다. 세계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신자유주의가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새로운 식량공급의 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GATT 우루과이라운드와 1995년 세계 무역기구의 출범은 이러한 변화의 제도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2차식량체제의 위기는 구체적으로는 농산물 무역의 증가, 농식품자본의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 전 지구적 중간계급의 등장 등과 함께 진행되었다.

2차식량체제는 미국의 헤게모니하에서 운영되었고, 배태된 자유주의의 틀에서 안정화된 것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초 달러의 금태환제도가 해체되고, 미

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면서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이념 및 정책적 지향으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식량공급의 구조 역시 변화를 맞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이룬 화하기 위한 관련 연구자들은 3차식량체제에 관한 논의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프리드먼과 맥마이클은 다소 다른 길을 걷게 된다.

프리드먼은 북반구의 환경주의 부상에 주목한다. 1960~1970년대 식품첨가물과 농약잔류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는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1980~1990년대 발생한 다양한 식품관련 사고들은 식품안전과 먹거리의 질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었다. 또한 공장형 축산과 관련된 동물복지의 문제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는 2차식량체제에 의해 형성된 산업적 농식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Friedmann, 2005: 249). 한편 남반구에서 2차식량체제하에서 진행되었던 녹색혁명과 산업형 농업은 농촌 공동체에 다양한 문제를 낳았다. 수출지향적 단작화(예: 과일, 화훼, 커피, 설탕) 심화는 지역의 식량부족 문제로 이어졌으며, 수출을 위한 축산업의 확대는 열대우림 파괴와 지역생태계의 훼손을 초래했던 것이다.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들과 관련해서 초국적 농식품기업들은 부유한 세계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새로운 축적의 기회를 넓혀 가고 있다. 친환경 인증제도,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제적 규범 제도화, 생산자들에 대한 사적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소위 녹색시장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식품공급의 체제를 프리드먼은 '기업-환경 식량체제(Corporate-Environmental Regime)'라고 명명한다(Friedmann, 2005).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기업-환경 식량체제는 다양한 모순적 세력들, 국가, 기업, 사회운동, 시민 등의 불안정한 갈등과 각축의 장이다. 관련해서 프리드먼은 현국면에서의 핵심 쟁점은 공공성(public)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직결된다고 지적한다(Friedmann, 2005: 259).

맥마이클 역시 2차식량체제의 해체가 진행되면서 점차 새로운 식량의 공급구범이 등장하고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초국적 기구 및 초국적 농식품 자본의 역할이 중요성에 주목한다. 2차식량체제에서 3차식량체제로의 이행은 보다 큰 틀에서 개발 프로젝트(development project)의 해체와 새로운 지구화 프로젝트(globalization project)로의 전환과 관련된다(McMichael, 2004). 정치적으로 보면 이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프로젝트에 의한 국가주권 및 시민권적 사회계약의 해

체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또한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지구적 소비자 계급(global consumer class)에 대한 식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업의 전례없는 전환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McMichael, 2005: 273).

맥마이클은 3차식량체제의 특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업식량체제(Corporate Food Regim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McMichael, 2005). 기업식량체제는 1995년 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에 의해 본격화된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농업협정을 통해 개별 국가들이 제공했던 농민과 농업에 대한 보호조치들을 해체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조절 형태, 즉 초국적 자본과 초국가적 기구들에 의한 먹거리 관리 방식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식량체제하에서는 표준화된 세계 시장 규범을 원리로, 농업 및 식량이 가진 특수성이 무시되고 농산물의 자유로운 교역이 추진되었다. 농업 보호의 해체와 농산물 자유무역 추진은 호주, 미국, 뉴질랜드 등 농업 강대국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동시에 실제 농식품 부문을 지배하고 있던 카길, 몬산토, 델몬트 등 소수의 초국적 농식품 관련 기업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국가의 농업보호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 지구적인 먹거리 공급체계를 만들어 가며,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Kneen, 2002).

기업식량체제의 중요한 특징을 맥마이클은 “강탈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남반구의 자산을 평가절하하고 민영화하며, 소농들을 농지에서 쫓아내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농들의 탈농뿐 아니라 지역농업체제와 완전히 단절적인 수출농업으로의 전환을 포함한다(McMichael, 2005: 266).

기업식량체제에서 점차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는 것이 대형 유통회사, 특히 초국적 슈퍼마켓들이다(Burch and Lawrence, 2007; 2009). 이들은 전 지구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민들과 직접 계약을 통해 생산자들을 관리하며, 소비자들의 소비 취향에 반응할 뿐 아니라 때로는 소비 유행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대형 슈퍼마켓들은 생산, 유통, 소비라는 농식품체계 전반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맥마이클에 따르면, 기업식량체제에 의해 안정화되고 있는 ‘세계농업(world agriculture)’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첫째, 기업의 전

락을 통해 종자에서 슈퍼마켓까지 먹거리 생애주기 전체를 수직적으로 또 때로는 수평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 하는 금융화다. 둘째, 금융화 관계를 통한 국가의 사사화(privatization of states)로서 이는 국제규범들이 식량보장을 시장에 의존케 하고, 국가들이 수행했던 식량의 공공적 성격을 박탈하고 있다. 셋째, 화폐가치의 보존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정책이 약화되고 이는 신자유주의 원리에 따른 농민의 토지 박탈(peasant expropriation)과 산업예비군의 형성이 진행이 진행된다(McMichael, 2005: 292).

이러한 논의들은 플라니의 자기조정적 시장(self-regulating market)에 관한 분석과 친화력을 갖는다(Polanyi, 1944/2001). 기업식량체제에서 세계화된 농업의 사회생태적 파괴와 그에 대응하는 저항운동은 플라니가 언급한 이중운동(double-movement)의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식량체제에 대한 세계적인 차원의 저항 운동은 사회의 자기보호를 위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해서 맥마이클이 주목하는 식량주권과 국제적 소농운동인 비아 캄페시나(Via Campesina)에 대해서는 5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IV. 식량체제와 한국의 농식품체제

1. 식량체제와 농식품체제

이하에서는 식량체제의 변화들 속에서 한국이라는 하위 단위의 변화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되고 재구성된 식량 공급 및 소비의 구조를 ‘농식품체제(agri-food system)’로 개념화했다. 한국의 농식품체제에 대한 논의에 앞서, 동아시아의 식량 공급 구조와 관련된 맥마이클의 논의를 잠깐 검토하자. 맥마이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발전 과정 가운데서 형성된 동아시아의 식량 관련 구조를 “동아시아 수입복합체(East Asian Import Complex)”라고 표현하며, 특히 일본의 중심성에 대해 주목한다(McMichael, 2000b). 미국의 관리하에 형성된 동아시아의 농식품체제는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뒷받침하였고, 식량문제는 쌀을 제외하고는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방

식으로 해결하였다. 미국의 잉여농산물인 값싼 밀의 소비 증가, 수입산 사료작물을 기반으로 한 축산업의 발달, 그리고 다양한 과일류의 수입은 낮은 식량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를 불균형적인 산업구조를 지닌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되었고, 국내 식량문제는 수입으로 해결하는 형태가 자리 잡은 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농식품체계는 먹거리와 농업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고, 농산물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을 분석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닌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상품체계분석이나 상품사슬론의 영향을 받은 일군의 농촌사회학자들의 주장이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Friedland et al., 1981; Dixon, 2002; 2009).

이 글은 농식품체계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식량체계의 거시구조/순환에 조응하는 국민국가 단위의 변화 구조를 지칭하는 데 사용한다.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2차식량체제의 시공간 속에서 한국의 농식품체계는 구조적/보편적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특수한 방식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거시구조로서의 식량체제와 그 하위단위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농식품체계는 상호 구성적이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되고, 재형성된 먹거리 공급의 동학을 역동적으로 그려 내기 위한 다소 거친 방법론적 고안이라고 할 수 있다.⁵

2. 한국 농식품체계의 변화

1) 제2차식량체제와 ‘개발주의 농식품체계’(해방 이후~1970년대 말)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국 헤게모니하에서 전후 자본주의 질서는 재편되었고, 새로운 식량체제가 형성되었다. 냉전체제의 틀 속에서 미국은 탈식민 신흥 독립국가들을 미국 체제 안으로 포섭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은 공산화에 대한

⁵ 이는 맥마이클의 통합적 비교를 원용하여, 전 지구적 차원의 식량체제와 한국이라는 하위단위의 농식품체계가 상호작용하며, 구성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치적 우려를 낳았고, 자본주의 질서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한 대외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식량원조는 이러한 미국의 대외정책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한반도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이후 농지문제는 첨예한 정치적 갈등의 지점이었다. 길고 지지부진한 농지개혁과정 속에서 남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었고, 한국전쟁을 겪으며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대 중반 이후 대량의 농산물 원조가 미국으로부터 제공되었다. 1954년 미국 ‘공법 480호(The 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Law: PL480)’가 제정됨으로써, 엄청난 양의 미국산 농산물이 한국으로 유입되었다. 미국 정부의 관련 문헌에 따르면, PL480은 “미국 농산물의 해외 소비량을 늘리고 대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은 장기적으로 볼 때, 모두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철규, 1999).

PL480으로 대표되는 미국 농산물 원조의 단기적 목표는 미국 내 잉여농산물을 처리함으로써, 미국 내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막고, 농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식량원조는 냉전의 틀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군사적 역할을 수행했다. 소비에트와의 경쟁 속에서 신흥독립국들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공산화의 위험을 낮추고자 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적 국제질서를 만드는 데 식량원조 프로그램이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한국은 PL480을 통해 1956~1961년 사이 약 2억 300만 달러 상당의 원조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밀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원조 초기였던 1950년대에는 주로 밀가루가, 그리고 1960년대 중반부터는 밀을 원조물품으로 받았다. 이처럼 대량으로 유입된 밀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를 추동하였다. 1968년의 미국에 의해 공급된 밀은 21만 톤에 달했는데, 이는 국내 제분산업의 기반이 되었다. 제일제분(오늘날의 CJ)과 같은 기업들이 수입 밀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차식량체제의 핵심적 주장은 미국의 농산물이 일부 비서구 국가들의 산업화와 노동계급 형성의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서 한국의 농식품체제의 특징들을 관찰할 수 있다. 식량체제론이 제시하는 2차식량체제의 일반적 특징이 한국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가와 동시에 한국에서 관찰되는 변화들이 2차식량체제라는 거시

구조 형성의 일부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통합적 비교의 전략을 고려하면서 한국의 내적 동학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대량으로 유입된 미국의 농산물은 한국인들의 주린 배를 채워 주었고, 식량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하지만 식량원조는 한국의 농업 생산부문에 큰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값싼 미국산 밀의 대량 공급은 국내 곡물가격에 전반적인 하락 압력을 가했으며, 이후 계속된 저곡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다. 1949년 농지개혁법 통과를 계기로 형성 중이던 한국의 가족농은 영세한 경지 규모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원조 농산물은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 식량원조에 따른 수입 곡물은 과잉 공급은 영세한 한국 농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농가 구성원 일부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얼핏 국내적 현상으로 보이는 1960년대 이후 대규모 탈농과 산업예비군의 형성은 식량원조라고 하는 국제적 변수와 무관치 않았다. 궁극적으로 식량원조를 통한 한국 농업 생산기반의 약화는 탈농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형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어린 여성들을 비롯한 다수의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여, 빈곤층을 형성하거나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1965년부터 1970년 사이 약 139만 명이 탈농했는데, 이는 1965년 기준 농촌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구가 노동집약적 산업화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는 한국인의 입맛과 식단에도 큰 변화를 초래했다. 한국인이 식단은 오랫동안 쌀밥을 중심에 둔 것이었다. 다만 쌀의 부족 때문에 다른 잡곡을 섞은 형태가 발달했다. 해방 이후 쌀밥에 대한 한국인들의 동경은 여전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충족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량으로 값싸게 공급되는 밀은 빠르게 한국인의 주곡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값싼 밀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조리해서 배를 채웠다. 오늘날 한국인 1인당 밀 소비량은 한해 32kg이 넘는데, 이렇게 되는 데는 밀 소비를 부추긴 정부의 분식장려정책이 있다. 값싼 밀로 만들어진 라면, 칼국수, 짜장면, 소면, 수제비 등은 1960~1970년대 저렴한 서민, 노동자 음식으로 저임금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먹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생산한 공산품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으로 수출되어, 새로

은 국제 분업구조를 만들어 냈다. 소위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상징되는 신국제분업구조(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의 이면에는 미국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다.

2차식량체제의 틀 속에서 형성된 한국의 개발주의 농식품체계의 특성은 근대화를 추구하던 권위주의 정부 정책을 통해 알 수 있다. 강력한 개발 드라이브를 걸던 박정희정부에서 눈에 띄는 중요한 정책은 녹색혁명이다. 한국의 녹색혁명은 북한과의 경쟁 속에서 진행된 ‘쌀밥(이밥)의 정치’와 무관치 않다. 냉전하에서 한국의 박정희와 북한의 김일성은 경제발전을 통한 체제경쟁의 대항자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으며, 경제발전의 중요한 상징이 국민들에게 쌀밥을 맘껏 먹이는 것이었다(김철규, 2018).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으며, 쌀 자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졌다. 한국의 식량증산 정책의 중심에는 녹색혁명이 있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 녹색혁명은 미국의 생산주의 농업 패러다임을 제3세계 지역에 확산시키려는 기술적·정치적 프로젝트였다. 2차식량체제의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녹색혁명은 다수확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 영농법을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녹색혁명 다수확 품종들은 대체로 많은 양의 화학비료와 농약을 투입해야 한다.

한국에서 녹색혁명은 1970년대 농촌진흥청, 서울대 농대, 그리고 필리핀의 국제미작연구소(IRRI)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 결과 ‘기적의 벼씨’라고 불리는 다수확품종 벼 종자인 ‘통일’이 개발됐다. 특히 서울대 농과대학의 허문회 교수는 국제미작연구소를 오가며 연구를 진행하여 통일벼(IR667)를 개발했다. 통일벼의 개발 성공으로 고무된 정부는 이후 유신벼 등 유사한 다수확품종들의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1973년부터 약 5년간 통일벼 재배는 일반 농민들에게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배 권유와 추곡수매제의 실행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 지역 행정조직, 농협, 농업 전문가, 농민들 간에 광범위한 공조가 이뤄지면서 통일벼 재배면적이 늘어나 한때 전체 논 면적의 25%를 차지하기도 했다(김태호, 2017: 133). 그 결과 한국은 1976년 쌀 자급을 달성하였으며, 이후 쌀 소비 제한에 관한 규제들이 대부분 해제되기에 이른다. 녹색혁명은 화학적 투입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했다. 화학비료, 화학농약, 농기계, 경지 정리 등의 농업 생산 전반의 변화를 야기했다. 또한 경종과

표 1 한국인 식품소비 변화: 곡물(단위: kg, 연간 소비량)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쌀	131.5	133.8	119.8	132.9	128.0	120.8	110.6	97.9	83.2	81.5
밀	14.9	18.8	30.1	29.4	32.0	29.7	34.1	36.1	31.6	33.3

출처: 식품수급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가축 사육 간의 단절이 이뤄지고 농업 전문화가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환경적으로도 큰 문제를 낳았는데, 포스터의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신진대사의 균열이 진행되었다(Foster, 1999). 녹색혁명 패러다임의 헤게모니는 한국 농업 전반이 화학적 투입재에 의존하는 소위 관행농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개발주의 농식품체계와 관련된 먹거리 소비의 중요한 특징은 밀과 쌀 소비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표 1 참조). 하지만 두 곡물은 완전히 다른 경로로 공급되었으며, 이는 한국 곡물체계의 이중적 구조를 보여 준다. 쌀은 정치적 이유로 세계 시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국내에서 자급되었다.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소비 역시 1980년대 중반까지 늘어났다. 쌀 소비의 증가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의 결과다. 하얀 쌀밥에 대한 오랜 욕망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충족되었던 것이다. 한편 밀 소비증가는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70년대 이후 원조 프로그램이 종식되고 상업적 무역을 통해 밀을 수입하게 되었지만, 밀 소비는 계속 증가했다. 어느덧 밀이 한국인에게 익숙한 먹거리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밀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농식품체계에서는 가공식품 산업 재료로서 그 소비량 증가가 지속된다.

2) 기업식량체제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농식품체계’(1980년대 이후~)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전세계적 확산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제도화로 이어졌다. 지구화프로젝트로의 진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McMichael, 2004). 그 중심에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가 있었는데, 세계무역기구의 핵심적 관심 사안 중 하나가 농산물의 자유화와 개별 국가의 농업보호 조치의 해체였다. 이는 농업협정으로 제도화되었고, 한국은 농업보호 조치의 해제와 자유무역주의의 확산 흐름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은 물론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되지만, 한국 자

본주의 자체의 성격 변화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한국은 주변부 국가에서 강한 반주변부 국가로 OECD 회원국이 되었고, 일부 재벌 기업들은 세계적 초국적 기업이 되었다. 또한 일부 도시계층과 중산층 사이에서 자본과의 이익 동일시가 나타났다. IMF외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의해 다수의 도시계층이 외국 자본 투자, 금융화, 세계화 등을 국내 경제활성화의 조건으로 간주하게 되면서 농업 부문 희생 불가피론에 동조하였다. 일종의 세계화 개발주의 동맹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런 변화는 칠레, 미국 등과의 FTA 추진 과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1980년대 이후 정부와 재벌들은 비교우위론에 근거한 무역자유화와 세계화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서 농업 부문의 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농업이 가진 다양한 기능과 의미는 사상된 채, 농민과 농업에 대한 정책이 비용으로 인식되었다. 기업식량체제의 일부로 재편되던 한국에서 개발주의적 유산이 사라지게 된 상징적 사건은 2004년 추곡수매제도의 완전 폐지라고 할 수 있다. 추곡수매제는 쌀의 경쟁력을 왜곡하는 주범으로 몰리게 되면서 폐지에 이르게 되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내 농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사라지게 되었다(김철규, 2006).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농업구조는 이원화되었다. 한편으로 국가주의적 농업인 미곡 부문이 주로 고령층 농민에 의해 유지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상업화·전문화된 채소, 과일, 축산업이 발달하는 이중적 농업체계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계층 분화와 이질화가 진행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농식품체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곡물자급률의 급격한 감소다(표 2 참조).

곡물 자급률의 급격한 하락은 국내 식량체계, 특히 곡물 부문의 안정성 약화를 의미한다. 한국인이 연간 30kg 이상을 소비하는 밀은 99%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한다. 옥수수과 콩 소비 및 수입의 증가는 축산업의 발달 및 육류 소비와 직결된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콩류의 자급률은 10% 정도, 옥수수의 그것은 약 1%에 불과했다. 육류 소비의 증가와 함께 사료 작물의 해외 의존성은 한국 신자유주의적 농식품체계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는 축산업의 전 지구적 분업 구조 혹은 육류 복합체의 한국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농식품체계의 한 축인 먹거리 소비와 관련해서 두드러진 특징은

표 2 한국의 곡물 자급률

	쌀	보리	밀	옥수수	두류	서류	곡물 자급률
1970	93.1	106.3	15.4	18.9	86.1	100.0	80.5
1980	95.1	57.6	4.8	5.9	35.1	100.0	56.0
1990	108.3	97.4	0.05	1.9	20.1	95.6	43.1
2000	102.9	46.9	0.1	0.9	6.4	99.3	29.7
2005	99.4	60.0	0.2	0.9	9.7	98.6	29.4
2010	104.6	24.3	0.9	0.9	10.1	98.7	27.6

출처: 농림업주요통계. 농림수산물부. 2012.

첫째, 식품산업의 발달에 따른 가공식품의 증가다. 밀과 설탕을 조합하고, 활용 한 빵이나 과자 등의 소비가 증가했다. 밀과 마찬가지로 설탕의 원료는 미국에서 주로 수입되었는데, 소수의 국내 제당회사들이 오랫동안 설탕산업을 지배하고 있다. 둘째, 육류, 유제품, 달걀 등의 소비 증가도 중요하다. 육류의 소비 증가는 공장형 축산업의 발달을 의미한다. 이는 물론 곡물사료의 대량 수입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사료뿐 아니라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적지 않은 양이 직접 수입되고 있다. 셋째, 과일 소비량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농업구조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일부 농가들이 보다 전문화되고 수익이 좋은 과일 생산에 관여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다양한 수입 과일들이 대형마트를 통해 일 년 내내 공급된다. 기업식량체제가 한국인의 먹거리 소비시장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지배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농식품체계는 기업식량체제의 일부로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농산물 개방은 1980년대 미국의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GATT우루과이라운드와 1995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라 농업 보호 정책이 해체되었고, 국제무역이 한국 먹거리 공급의 기반이 되었다. 한국의 곡물 수입 과정에서 카길을 비롯한 농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전체 식품의 공급망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해 왔다. 그 과정에서 국내의 농민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주변화되고 있다. 농민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매우 낮아졌다. 근대화과 세계화에 의한 농업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식량체제의 모순과 대안의 모색

III장에서 지적했듯 2차식량체제 이후의 새로운 체제, 즉 3차식량체제의 특성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프리드먼과 맥마이클은 상이한 입장을 취한다. 양자 모두 1차식량체제와 2차식량체제의 모순의 연속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프리드먼은 그 과정에서 누적된 모순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녹색자본주의에 주목한다.

식량체제의 동학 및 변화에 있어 프리드먼과 맥마이클 모두는 대안에 대해 고민을 담고 있는데, 우선 프리드먼의 주장을 검토하자. 프리드먼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 나는 식량체제의 역사를 사회운동의 렌즈를 통해 재해석해 왔다. 이민을 통해 정착자가 된 잉여 노동자들이 1차식량체제를 만들었으며, 1차식량체제에서 형성된 새로운 종류의 농민들이 2차식량체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2차식량체제의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에 대항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축적, 권력, 계급의 재구성을 이끌어 낼지도 모른다. 이것은 정의롭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수십 년 동안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Friedmann et al., 2016: 7).

프리드먼은 식량체제의 한계와 식량체제론 자체의 이론적 사각지대에 주목한다. 이는 식량체제들이 내부화하고 또한 그것이 초래한 생태문제 및 유전공학에 의해 전면으로 등장한 식품안전과 관련된 것이다. 프리드먼은 3차식량체제 모순이 심화되면서 식량체제 전환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만약 식품안전의 위기가 지속되고, 화석연료, 온실가스, 수질 오염, 그리고 토지 및 생물학적 다양성의 손실이 산업적 농업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받고 있다는 인식이 점점 커진다면 우리는 한꺼번에 식량체제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식량체제들은 생태학적 영향들에 거리를 둬으로써 권력과 이익을 취해 왔다. 자기 조직적인 공간들이 충격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함으로써 태양 아래 진정으로 새로운 것이 필요하고, 캠펠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생태적으로 복원력을 갖춘 미래로의 경로가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Friedmann, 2009: 341).

이전의 식량체제에서 누적되어 오고, 새로 등장한 식량체제에서 더욱 분명하

게 드러나는 생태적 모순과 식품안전의 문제는 새로운 주체들의 운동과 연대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이러한 모순적 특징을 반영한 개념이 기업-환경 식량체제인 것이다(Friedmann, 2005). 기업-환경 식량체제가 담고 있는 변화들은 예전과는 다른 사회운동의 등장을 예측하게 하는데, 예컨대 환경운동, 녹색소비자운동, 공정무역, 소비자 건강, 동물복지 운동 등을 들 수 있다.⁶ 프리드먼은 농식품체계의 품질에 대한 문제는 녹색 자본주의를 예측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식품체제의 특권적 소비자들에게만 제공될 것이라고 본다. 녹색 자본주의의 소용돌이에서 프리드먼은 핵심 긴장을 찾아낸다. 국가, 기업, 사회운동, 시민들은 녹색야전다를 둘러싼 새로운 투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2차식량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체제의 등장과 관련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던 맥마이클은 2005년의 글을 통해 보다 명료하게 기업식량체제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맥마이클은 산업형 농업의 가장 대척점에 있으며 최대의 피해자인 소농(peasants)에 주목한다. 기업식량체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초국적 농식품기업과 소농 간의 착취적 모순적 관계가 투쟁의 지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관계의 중심에 농사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농지가 있다(McMichael, 2008; 2016). 2000년대 이후 빠르게 확산된 초국적 자본에 의한 제3세계지역의 농지수탈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식량주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수탈의 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에 의한 저항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초국가적 농민운동인 비아 캄페시나(via Campesina)이다. 비아 캄페시나는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이 제도화한 자유무역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자유무역의 미명하에 실제로는 세계 농업과 식품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소수의 초국적 기업들의 특권적 경제활동을 보장해 줄 뿐이라고 주장한다. 국가들 간 농산물 교역에 관한 논의와 협정의 이면에는 카길, 몬산토와 같은 초국적 농식품기업들이 존재한다. 비아 캄페시나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개념이 식량주권(food sovereignty)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⁶ 프리드먼이 실제 토론토의 먹거리위원회(Toronto Food Policy Council)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로컬푸드의 확산에 노력을 기울인 것은 그 실천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식량주권은 사람들이 자신의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의 농업 생산과 무역을 보호하고 규제하며, 얼마나 자급적이기를 원하는가의 정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시장에 농산물을 쏟아붓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무역에 반대하지는 않으며, 안전하고 건강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무역 정책과 실천을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Via Campesina, 2001).

비아 캄페시나와 같은 초국가적 농민운동과 식량주권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이 기업식량체제의 모순이 극명하게 마주치는 곳이기 때문이다. 세계 농업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상품으로서의 먹거리(food from nowhere)”를 의미하며, 초국적기업들에 의해 조직된다. 반면 소농들은 “구체적인 장소, 생명, 행위자가 결합된 먹거리(food from somewhere)”의 주체이다. 강탈의 대상으로서의 주체인 소농들이야말로 식량주권을 통해 새로운 대항운동의 주체인 것이다. 따라서 소농들의 전통종자, 지역 농업지식, 지역의 문화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탈국가적이고 초국가적인 농민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맥마이클의 입장이다(McMichael, 2009). 세계농업의 모순은 사실 그동안 이어져 온 식량체제들의 역사적 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식민지 단작에서 시작되어(1차식량체제), 중심부의 화석연료 의존적인 산업형 농업을 통해 공고화된(2차식량체제) 자본주의적 농업은 신자유주의적 전환 속에 전 지구적 기업식량체제로 이행하였다. 이러한 거대한 구조의 대척점에 소농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식량주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연대는 농민뿐 아니라 중심부 국가들의 환경운동이나 대안먹거리운동들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식량체제의 모순들이 산업형 농업과 공장형 먹거리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에 대한 논의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농식품체계 역시 거시적 구조로서의 식량체제의 틀 안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어 왔다. 20세기 중반 이후 본격적인 2차식량체제에 포섭되었으며, 신자유주의적인 전환 속에서 3차식량체제, 즉 기업식량체제의 하위단위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한국의 특수성, 특히 강력한 국가, 산업화 전략, 과잉도시화 등은 한국 농식품체계의 독특성을 형성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소위 근대화화 세계화의 특성들이 누적되면서 만들어진 한국 농식품체계와 농업위기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다(김종택, 1997; 김철규, 2018; 김철규 외,

2012; 윤병선, 2008; 이해진·윤병선, 2016). 직간접적으로 식량체제론의 영향을 받으며, 한국의 농업문제를 국제적 맥락에 위치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 대안 농업과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실험과운동이 적지 않았다(김철규, 2011; 김홍주 외, 2015). 구체적으로는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운동, 농민장터, 다양한 조직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꾸러미 활동들이 있다. 시민단체, 농민조직, 지자체 등이 농업과 먹거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왔던 것이다.

최근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서 대안운동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세계식량체제의 문제점과 식량주권을 중심에 둔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윤병선, 2015; 송원규·윤병선, 2017), 한살림과 같은 생협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다(김철규 외, 2012; 이해진, 2019). 농민장터의 배태성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도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큰 함의를 가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윤병선 외, 2012). 또한 로컬푸드의 정신을 제도화하려는 학교급식에 관한 연구와 친환경 생산자 조직에 대한 연구도 기업식량체제의 모순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할 만하다(김홍주, 2008; 2014; 김홍주 외, 2014; 허남혁, 2009).

식량주권을 중심에 두고 동시에 소비자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대안먹거리운동의 대표적인 예로는 전국여성농민연합회(전여농)의 활동을 들 수 있다(김철규, 2018; Kim et al. 2019). 전여농에서는 토종씨앗 지키기 사업과 언니네텃밭 사업을 진행해 왔다. 언니네텃밭은 회원 여성 농민들이 농생태학에 근거해서 자신의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이를 꾸러미라는 사회적 경제 형태로 도시의 회원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 이러한 활동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으로(윤정원, 2010: 331), 추상화된 시장기제와 초국적 농식품기업들의 통제에 작은 해방의 공간을 만드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여농은 비아 캠페시나의 회원조직으로 식량주권을 자신의 조직 지향점 가운데 하나로 분명히 해 왔다. 이러한 정치적 입장 속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통해 도농연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전여농의 대안적 운동은 맥마이클이 강조하는 소농과 프리드먼이 주목하는 소비자들을 연결시키는 정치적·분석적인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식량체제 개념의 구성이 통합적 비교를 기반으로 했던 것처럼, 사회운동에 관한 논의도

역사적·구성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의 농촌여성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자투리 땅을 기반으로 한 생태적 농업은, 그 규모가 작지만 거대한 기업식량체제에 균열을 만들 수 있다. 산업적 농업에 저항하며, 생태적 원리를 존중하고, 주변화되었던 여성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농사는 자본주의의 산업적 획일화에 대한 의미 있는 도전이다. 이들이 먹거리를 매개로 어떻게 국제적 협력망을 만들고, 도시 소비자들과 연대의 경제를 만드는가는 식량체제론의 재구성과 대안의 모색에 기여할 바가 적지 않다.

투고일: 2020년 10월 15일 | 심사일: 2020년 11월 25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3일

참고문헌

- 김종덕. 1997. 『원조의 정치경제학』. 경남대출판부.
- 김태호. 2017. 『근현대 한국 쌀의 사회사』. 들녘.
- 김철규. 1999. “현대 미국 농업구조의 특징과 변화의 동학.” 『농촌사회』 9집, 194-218.
- _____. 2006. “한국 농업체제의 위기와 세계화.” 『농촌사회』 16집 2호, 183-211.
- _____. 2011. “한국 로컬푸드운동의 현황과 과제: 농민장터와 CSA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2집 1호, 111-133.
- _____. 2018. 『사회학의 눈으로 본 먹거리』. 따비.
- 김철규·김진영·김상숙. 2012. “대안 먹거리운동과 한국의 생협: 한살림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4권 1호, 117-143.
- 김철규·윤병선·김홍주. 2012. “먹거리 위험사회의 구조와 동학.” 『경제와사회』 96권, 12-42.
- 김홍주. 2006. “생협 생산자의 존재형태와 대안농산물체계의 모색: 두레생협 생산자회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6집 1호, 95-141.
- _____. 2008. “풀무생협 생산자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18집 1호, 43-89.
- _____. 2014. “먹거리 대안체제와 공공급식.”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5권 3호, 1-29.
- 김홍주 외. 2015. 『한국의 먹거리와 농업: 한국 농식품체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대안』. 따비.

- 김홍주·이현진·김선업. 2014. “친환경생산 농민의 사회적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ECO』 18집 2호, 45-82.
- 송원규·윤병선, 2017. “식량주권의 제도화와 농민권리 선언에 관한 고찰.” 『농촌사회』 27집 2호, 7-43.
- 윤병선. 2008. “세계 농식품체계 하에서 지역먹거리운동의 의의.” 『ECO』 12집 2호, 89-115.
- _____. 2015. 『농업과 먹거리의 정치경제학』. 울력.
- 윤병선·김선업·김철규. 2012. “원주 농민시장 참여생산자의 특성과 배태성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산업경제연구』 25집 3호, 2279-2307.
- 윤정원. 2010. “얼굴있는 생산자와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가 함께하는 ‘우리텃밭’.” 『로컬푸드 전국대회in 원주』. 원주푸드위원회 심포지엄 자료집.
- 이해진. 2019. “협동조합 먹거리체계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한살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29집 2호, 77-128.
- 이해진·윤병선. 2016. “로컬푸드운동을 사회적경제 생태계로 확장하기.” 『농촌사회』 26집 2호, 7-48.
- 허남혁. 2009. “생협 생산자 조직의 생산-소비관계 변화: 홍성 풀무생협 사례 연구.” 『농촌사회』 19집 1호, 161-211.
- Araghi, F. 1995. “Global De-peasantisation, 1945-1990.” *The Sociological Quarterly* 36(2), 337-368.
- _____. 2003. “Food Regimes and the Production of Value: Some Methodological Issues.”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30(2), 41-70.
- Arrighi, G. 1994. *The Long Twentieth Century*. London: Verso.
- Burch, D. and G. Lawrence. 2007. *Supermarkets and Agri-Food Supply Chains. Transformations in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Foods*. Cheltenham: Edward Elgar.
- Burch, D. and G. Lawrence. 2009. “Towards a Third Food Regime: Behind the Transformation.”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26(4), 267-279.
- Dixon, J. 2002. *The Changing Chicken: Chooks, Cooks and Culinary Culture*. Sydne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Press.
- Dixon, J. 2009. “From the Imperial to the Empty Calorie: How Nutrition Relations Underpin Food Regime Transitions.”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26(4), 321-333.
- Foster, J. B. 1999. “Marx’s Theory of Metabolic Rift: Classical Foundations for

- Environmental Soci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2), 366-405.
- Friedmann, H. 1982. “The Political Economy of Food: The Rise and Fall of the Postwar International Food Orde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S, 248-286.
- _____. 2000. “What on Earth Is the Modern World-system? Food-getting and Territory in the Modern Era and Beyond.” *Journal of World-System Research* VI(2), 480-515.
- _____. 2005. “From Colonialism to Green Capitalism: Social Movements and the Emergence of Food Regimes.” In Buttel, F. H. and P. McMichael, eds. *New Directions in the Sociology of Global Development*, 229-267. Oxford: Elsevier.
- _____. 2009. “Discussion: Moving Food Regimes Forward: Reflections on Symposium Essays.” *Agriculture & Human Values* 26, 335-344.
- Friedmann, H. and P. McMichael. 1989. “Agriculture and the State System: The Rise and Fall of National Agricultures, 1870 to the Present.” *Sociologia Ruralis* 29(2), 93-117.
- Friedmann, H., B. Daviron, and G. Allaire. 2016. “Political Economists Have Been Blinded by the Apparent Marginalization of Land and Food.” An interview with Harriet Friedmann. *Revue de la régulation*. 10.4000/regulation.12145 (검색일: 2020. 10. 12).
- Friedland, W., A. Barton, and R. Thomas. 1981. *Manufacturing Green Go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odman, D., B. Sorj, and J. Wilkinson. 1987. *From Farming to Biotechnology. A Theory of Agro-industrial Development*. Oxford: Basil Blackwell.
- Katznelson, Ira. 2003. “Periodization and Preferences.” In J. Mahoney and D. Rueschmeyer, eds.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H. J., C. K. Kim, H. J. Lee, and H. K. Chung. 2019. “Female Peasants and the Alternative Agri-food Movement in South Korea: Agroecology and the Korean Women Peasant Association Movement.” *Journal of Asian Rural Studies* 3(2): 158-170.
- Kneen, B. 2002. *Invisible Giant. Cargill and Its Transnational Strategies*. London: Pluto Press.

- Magnan, A. 2012. "Food Regimes." In J. M. Pilcher, ed. *The Oxford Handbook of Food History*, 370-38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rx, K. 1967. *Capital* Vol. 1. Moscow: Progress Publishers.
- McMichael, P. 1990. "Incorporating Comparison within a World Historical Perspectiv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3), 385-397.
- _____. 2000a. "World-Systems Analysis, Globalization, and Incorporated Comparison." *Review* 39(1), 668-689.
- _____. 2000b. "A Global Interpretation of the Rise of the East Asian Food Import Complex." *World Development* 28(3), 409-424.
- _____. 2004.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Pine Forge.
- _____. 2005. "Global Development and the Corporate Food Regime." In F. H. Buttel and P. McMichael, eds. *New Directions in the Sociology of Global Development*. Oxford: Elsevier Press.
- _____. 2008. "Peasants Make Their Own History, But not Just as They Please." *Journal of Agrarian Change* 8(2-3), 205-228.
- _____. 2009. "A Food Regime Genealogy."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36(1), 139-169.
- _____. 2016. "Commentary: Food Regime for Thought."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43(3), 648-670.
- Mintz, S. 1986. *Sweetness and Power. The Place of Sugar in Modern History*. New York, NY: Vintage.
- Pfeiffer, D. A. 2006. *Eating Fossil Fuels*. Gabriola Island: New Society Publishers.
- Polanyi, K. 1944/2001. *The Great Transformation*. New York: Bacon Press.
- Ruggie, J. 1982. "International Regimes, Transactions, and Change: Embedded Liberalism in the Postwar Economic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2), 379-415.
- Via Campesina. 2001. "Our World Is not for Sale. Priority for Peoples' Food Sovereignty." *Bulletin*, November 1. www.viacampesina.org/welcome_english.php3.(검색일: 2020. 10. 12)
- Wallerstein, I. 1974. *The Modern World System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 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New York: Academic Press.

Abstract

Changing World System and Agri-food Systems from a Food Regime Perspective

Chul-Kyoo Kim Korea University

The world-systems perspective has a great theoretical and empirical impact on various fields in the social sciences. The sociology of food and agriculture is one such area. The food regime perspective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the world-system perspective, especially its discourse on hegemonic cycles. This paper introduces the food regime perspective, which has been advanced by Philip McMichael and Harriet Friedmann, to explain the trajectory of food provision on a global level. Building upon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mplications of the food regime perspective, I use the term agri-food system to explain the paths of Korean food provision structures and dynamics since the mid-20th century. This will be followed by a discussion of what needs to be accomplished in order to challenge a third food regime, which is characterized by corporate domination. The issue of food sovereignty and alternative movements are examined to seek a more sustainable food system against the corporate food regime.

Keywords | world system, food regime, agri-food system, food sovereignty, alternative food movement